‘에너지 절감형’ 상품 전성시대

차 연료 절감제 지난달 매출 작년동기 120% 급증

대기전력 자동차단기·보온효과 문풍지·커튼 인기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휘발유와 등유 등 석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직장인과 주부들이 구매에 적극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엔진성능을 높여 고효율을 내는 엔진첨가제 ‘불스원샷’이 10월 한달동안 전월대비 15% 신장했다.

또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는 문풍지와 커튼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5일까지 문풍지는 전년 동기대비 35%의 매출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커튼제품도 27%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몰 롯데닷컴은 10월 한달간 자동차 엔진 증강제 등 자동차 연료 절감관련 제품매출이 작년 동기대비 120% 이상 늘었다.

엔진기능을 최적화해 연료소모를 줄이는 독일 뷔르트사의 엔진 코팅제(2만8천원)는 1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2천500여개 팔렸다.

롯데마트에선 지난달 중순부터 2주간 에너지효율 1등급 전구제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57% 늘었다. ‘오스람 2관 형광등(36W·2개)’과 ‘GE 삼파장 형광등(15W·2개)’ 등이 그것으로 일반 전구에 비해 가격은 15%가량 비싸지만 전력 소모량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CJ몰은 10월 한달간 한 콘센트에 3~4개의 전기제품 코드가 꽂혀 있을 때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전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해 주는 에어윈스사의 ‘대기전력 자동 차단기(2만3천원)’를 1천500개를 팔아치웠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는 9월에 비해 50%가량 늘어난 수치”라며 “이 제품은 연간 사용 전기량을 15%가량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애용해온 내복과 자전거 등의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2주간 내복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7%가량 증가했고, 간절기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기장판은 무려 46%의 신장세를 보였다.

온라인 장터 옥션은 10월 한달간 자전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12만대에 달했다. 자전거 매출 급증세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감형 상품판매가 늘면서 유통업체들은 품목 확장에 뛰어들고 있다. 롯데마트는 에너지 절감형 제품군 조사를 마치고 취급 품목을 확대, 두배가량 늘어난 100여 제품을 팔고 있다.

에너지 절약제품의 마케팅도 대거 마련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오는 14일까지 피에르가르뎅 성인내복(7천800원) 등 내복을 종전보다 30%가량 할인해 파는 ‘언데웨어 특가기획전’을 연다.

광주신세계 김봉철 MD2팀장은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상품이나 고효율 제품을 많이 팔리는 편”이라며 “올 겨울에는 연료소비가 적고 이동이 편리한 소형 난방가전의 판매가 작년보다 20~30%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현대·기아 브랜드 체험하세요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 설치된 ‘현대·기아 브랜드 체험관’에서 자사 브랜드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오는 9일까지 자사 브랜드 방향성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현대·기아차 브랜드 데이(Brand Day)’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전남 여성경제인 ‘휴대용 인삼주스’ 대박 예약

샬롬산업 김정매 대표, 국내 첫 개발

농산물 가공업체인 샬롬산업(대표 김정매·나주시 왕곡면 월전리)이 전국에서는 처음 4년근 수삼(말리지 않은 인삼)으로 만든 휴대용 인삼주스를 출시, 눈길을 끌고 있다.

샬롬산업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올 9월 금산인삼농협에서 ‘갈아만든 인삼즙’ 시제품 판매에 들어갔다.

김정매 대표는 “가정에서 수삼과 증탕기를 구입해 홍삼으로 증숙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뿐 아니라, 진공동결한 개당 7g짜리 인삼블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 어느 때나 쉽게 마실 수 있어 간편하다는 게 장점”이라며 “효능면에서도 가정에서 만든 홍삼과 별 차이가 없어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샬롬산업은 올 9월 금삼인삼농협과 112t에 달하는 수삼 공급계약을 체결, 올 말까지 160만개의 인삼블록을 생산해 국내시장 공략에 나선다. 특히 전국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말 GS홈쇼핑 광고와 판매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국내 판매와 함께 현재 미국·유럽쪽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중”이라며 “내년에는 생산물량을 500만~800만개로 확대, 주력제품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샬롬산업에 따르면 시판가는 30개 1박스당 5만2천~5만3천원 선으로, 내년 인삼블록 매출은 40억~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삼블록은 4년근 수삼을 미세분쇄→인삼즙으로 가공→몰드처리→진공동결 과정을 거쳐 알루미늄박으로 포장한 제품이다. 이 과정에서 70g 수삼은 10분의 1 중량의 7g 크기로 변신, ‘주머니속의 인삼블록’이 된다. 소비자들은 우유나 주스가 든 컵에 인삼블록을 넣은 뒤 30초만 기다리면 인삼주스를 마실 수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11일은 ‘가래떡 데이’

한눈에 반한쌀 등 12개 브랜드쌀로 1,111m 떡만들기

오는 11일 ‘가래떡데이’를 맞아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쌀’ 등 전남쌀 5개 브랜드를 포함한 전국 12개 우수브랜드쌀이 1천111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의 손을 거쳐 1천111m 길이의 가래떡으로 만들어진다.

6일 농촌정보문화센터 관계자는 “11월11일에 초콜릿과 패스트푸드 대신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을 선물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농림부가 11일을 ‘가래떡데이’로 지정했다”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리며, 현장에 가래떡 뽑는 기계를 설치해 1시간 동안 1천111명의 어린이들이 컬러 가래떡을 직접 뽑게 된다.

행사용 쌀은 올해 소비자단체에 의해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한눈에 반한 쌀(해남 옥천농협), 봉황쌀(강진농협), 드림생미(나주 동강농협), 프리미엄호평(강진 도암농협), 왕건이 탐낸 쌀 골드(나주 남평농협) 등 전국 12개 지역산 80㎏들이 6가마가 사용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상의 회장 보선 박흥석씨 후보 등록

오는 12일로 예정된 광주상공회의소 후임회장 보궐선거에 박흥석(63) 광주상의 회장직무대행이 6일 회장 후보 등록을 했다.

박 대행은 한상원(동아에스텍 대표) 상공의원의 추천을 받아 출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등록시한은 8일 오후 6시이며, 6일 현재 등록후보는 박 대행이 유일하다.

박 대행은 럭키산업·광주방송(KBC)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17~19대 상공의원, 18~19대 부회장 등을 지냈다.

한편 지역 경제계에서는 광주상의의 화합을 위해 경선이 아닌 추대형식으로 후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또다른 등록후보가 없거나 상공의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박 대행이 회장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공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투표를 통해 상공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회장으로 선출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 오피스텔 기준시가 내년 7% 인상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8.3%와 8.0% 인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서울·경기·광주·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지역의 오피스텔 30만462호와 상업용 건물 37만98호 등 67만560호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7일부터 26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이 기간에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26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 결과는 다음달 2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지역별 기준시가의 예상 평균 상승률은 오피스텔은 광주 7.0%, 서울 9.3%, 경기 7.7%, 인천 8.0%, 대전 8.2%, 대구 6.8%, 부산 5.2%, 울산 7.8%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아시아나 항공, 목포 운항편 무안 이전

아시아나항공은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매일 1회 운항하던 김포-목포 항공편을 김포-무안으로 변경해 운항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무안공항 개항과 함께 목포공항이 폐쇄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 김포-목포 항공편은 7일까지만 운항한다. 한편 오는 9일부터 아시아나 여객기는 김포공항을 매일 12시 30분에 출발해 무안에 오후 1시 20분에 도착하며, 무안에서는 매일 오후 1시 50분에 이륙해 오후 2시40분 김포공항에 내린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는 ‘대형 마트 천지’

이달 홈플러스 광주 2호점 개점

필하임·홈에버 등 잇따라 상륙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광주 2호점이 이달 중순 개점하게 됨에 따라 지역의 대형 유통업계간 고객 유치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6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하남점이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개점됨으로써 광주시내 대형유통점은 신세계 이마트 5곳, 롯데마트 3곳, 홈플러스 2곳, 빅마트 2곳, 신세계·롯데·현대 등 3개 백화점 등 총 15곳에 이르게 됐다.

또 연말 개점 계획인 광주 동구 계림동 옛 광주시 청사 부지의 필하임, 최근 개점하려다 회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북구 임동 옛 나산클레프 자리의 홈에버, 내년말 수완지구에 들어설 롯데마트 등을 합치면 대형유통점은 무려 1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홈플러스가 수년 째 입점을 시도중인 남구 백운동 부지, 국내 유력 유통업체가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서구 상무지구와 북구 운암동 등까지 포함하면 대형유통점 숫자는 20곳도 넘어설 기세다.

여기에다 현재 시내 곳곳을 점유하고 있는 롯데슈퍼 9곳까지 더하면 광주시내는 ‘대형유통점의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